지역 소식통

'정읍시민의 장' 후보자 5개 부문 추천 접수

정읍시가 지역의 명예를 드높이고 남다른 열정과 노력으로 시정 발전에 헌신·봉사한 시민을 추천받는다.

시는 '정읍시민의 장' 후보자를 추천받는다고 2일 밝혔다.

'정읍시민의 장'은 시민의 이름으로 수여하는 정읍 최고 권위의 상으로 매년 숨은 공로자들을 찾아 수여하고 있다.

시상 부문은 △문화체육상 △애향봉사상 △농산업경제상 △효행선행상 △명예 시민의 장으로 총 5개 부문이다.

수상자격은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고 3년 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다. 단, 애향봉사상과 명예시민의 장은 거주요건에서 제외된다.

추천자격은 시 단위 각급 기관장, 사회단체장, 학교장, 기업대표, 향우회장, 읍·면·동장 및 실·과·소장 등이다.

접수기간은 2일부터 오는 31일, 제출서류를 갖춰 시청 총무과나 각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잼버리 기간 변산 해수욕장 스포츠 캠핑 운영

부안군에서는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맞춰 스포츠 캠핑 프로그램을 지난 7월 21일부터 9월 2일까지 변산해수욕장에서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관광객들에게 텐트 및 장비를 대여해 편리하게 캠핑 및 해변요가 및 정투 캐스팅대회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한다.

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공모한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며 군은 2022년 공모사업에 선정돼 3년간 국비 13억을 지원받아 스포츠캠핑페스티벌, 선상버다낚시대회, 요트체험 등 다양한 스포츠 관광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2023 세계잼버리를 찾는 외국인 및 관광객들에게는 부안에서 제공되는 해양스포츠 프로그램이 뜻깊은 경험이 될 것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폭염 대응 종합대책 추진

정읍시, 그늘막 59개소 설치·운영… 특보시 얼음생수·각얼음 비치 등 선제 대응

정읍시는 올 여름 슈퍼엘리뇨의 발생으로 인해 폭염 일수와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이라는 예보에 따라 오는 9월 30일까지를 폭염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폭염 대응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먼저 도시안전국장 총괄 아래 상황관리반, 건강관리지원반, 시설관리반 등 총 3개 반 13명으로 구성된 '폭염T/F팀'을 운영해 유관기관과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폭염 대응사항을 전파하는 등 종합 상황관리에 들어간다.

여름철 폭염대책으로 보행자가 많은 사거리 등 시내 곳곳에 스마트그늘막(온도 15℃이상, 풍속 7m/s이하 가동) 10개소를 추가 설치해 총 59개소의 그늘막을 운영 중이며, 주요 버스정류장에는 탄소냉온열벤치 6개소를 추가설치하며 총 56개의 탄소냉온열벤치가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역 내에 냉방기기가 구비된 무더위쉼터 387개를 지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전에 냉방기기 점검을 통해 폭염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내 주요구간에는 특보발효 시 얼음생수와 각 얼음등을 비치해 시민들의 체감온도를 조금이나마 낮출 방침이다.

또한 폭염 특보 발효 시 피해예방을 위한 각종 캠페인 및 홍보물품을 제작해 폭염 취약계층에게 배부하는 등 철저한 대비로 폭염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학수 시장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살인적인 폭염이 지속되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민들께서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온이 높은 한낮 시간대에는 야외활동을 가급적 삼가주시고, 폭염대비 건강수칙 준수 등 개인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원전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주민 서명운동 마감

고창군, 1만7000여명 동참

고창군이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과 함께 추진해온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100만 주민 서명운동'에 1만7,000여명의 고창군민이 동참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100만 주민 서명운동'은 지난 5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원전 인근지역 23개 지자체 503만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최종 서명인원은 134만519명이며, 이중 고창군 서명인원은 1만7,440명이다.

고창군에서는 그간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서명 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심덕섭 고창군수, 윤준병 국회의원, 임정호 고창군의회 군의장 등이 서명 참여 SNS 챌린지도 추진했다.

그 결과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주민공감대를 형성하여 7월말 목표인원인 1만4,000명을 돌파했다.

고창군은 지역 내 현수막 게첨으로 서명 운동에 참여한 모든 주민에게 목표 초과달성을 알리고, 감사와 축하분위기를 조성키로 했다.

기존 100만 서명운동 참여 홍보 SNS 릴레이 챌린지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릴레이 챌린지로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방사능비상계획구역 내에 포함된 고창군의 재정적 지원을 위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번 100만 주민 서명운동의 초과 목표 달성을 통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이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고창군은 전국 원전 인근 지자체와 함께 9월경 국회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에 주민들의 염원을 담은 서명지를 전달하고 불합리한 원전 지원정책 개선 및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할 방침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잼버리 대회장 홍보관 운영

고창군이 2023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행사장에 홍보관을 설치해 역사·문화예술·생태도시 고창의 매력을 알리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 고창군의 핵심 브랜드 가치를 다양한 나라에 알리면서 글로벌 관광도시로 한 발 더 다가서고 있다는 평가다.

2일 고창군에 따르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기간 중 행사장 델타구역 내 홍보관을 운영한다. 스카우트 잼버리는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지구촌 3대 이벤트로 불린다.

170여개국에 달하는 국내외 청소년 4만명은 물론, 외교사절단과 정부 관계자 등 주요 VIP등이 참석, 각 지역을 알리는 절호의 기회로 삼고 있다.

델타구역에는 69개 참가국의 다채로운 전시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으며, 잼버리 참가 자격이 없는 일반인도 방문이 가능하다.

고창군의 홍보관은 생태관광, 치유·힐링 도시 '고창'의 매력을 가득 담았다. 문화관광 해설사의 전문해설과 관광 홍보 동영상 상시상영,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의 보물 7개의 사진전도 함께 진행한다.

특히 '문화유산 체험 코너'를 마련하여 △고인돌 유적지 VR 체험 △선사시대 농기구 '반달돌칼 만들기' △고창의 대표 관광지 '고창읍성' 3D 퍼즐 만들기 등 청소년 방문객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2023년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지난 1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매일 세계 각국의 스카우트 대원 160여 명이 영외과정활동인 '부안 변산마실길 1코스 하이킹 프로그램'에 참여 하고 있다.

부안 변산마실길 1코스 하이킹

세계잼버리 영외과정활동… 일평균 160여명 총 1280여명 참여

2023년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지난 1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매일 세계 각국의 스카우트 대원 160여 명이 영외과정활동인 '부안 변산마실길 1코스 하이킹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부안 변산마실길 1코스 하이킹 프로그램은 8월 2일부터 10일까지 6일을 제외한 8일간 운영되며 총 1,280여 명의 세계잼버리스카우트 대원들이 참여한다. 도전적인 산악 지형과 해안을 따라 부안 지역의 아름다운 경관을 탐험하는 특별한 체험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연과 환경을 존중하는 마음가짐을 함양하고 리더십과 협동심을 발전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날 대원들은 지도자와 안전가이드의 지도 하에 변산마실길 1코스의 시점인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부터 종점인 변산해수욕장까지 약 5km에 달하는 탐방로를 걸으며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였다. 어려운 지형과 날씨 조건에도 불구하고 대원들은 끈기와 용기를 발휘하여 하이킹을 완수하였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경험할 수 있었다.

본 프로그램은 국제적인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여 다양한 문화를 배우고 존중하며 세계 각국에서 온 스카우트 대원들끼리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우정의 가치를 이해하고 나눔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안군은 이번 부안 변산마실길 1코스 하이킹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대원들이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부안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여기서 길러진 대원들의 끈끈한 우정과 협동심이 이 세계잼버리스카우트 기간 동안 청소년들의 성장과 국제적인 우정을 이어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평산 신호' 장군, 정읍시 이달의 역사인물 선정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곁에서 왜군을 물리치는데 일조한 평산 신호(1539~1597)장군이 이달의 정읍 역사인물로 선정됐다.

1539년 전라도 고부군 우일면 원당리(현 정읍시 북면 남산리 원당마을)에서 태어난 신호 장군은 1567년(명종 22)무과에 급제해 내외직을 역임하다 무예를 인정받아 북방의 주요 방어지인 조산 보만호에 임명됐다. 몇 년 후 도총부도사로 임명됐다.

1592년 낙안군수로 있을 때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전라좌수사 이순신 장군을 도와 옥포해전에서 왜적의 큰 배 한 척을 부쉈고, 또 사천해전, 한산도대첩, 안골포 해전 등 크고 작은 전투에서 여러 공을 세워 통정대부로 승진했다.

1597년(선조 30년) 정유재란 때에는 고룡산성수어사로 있다가 남원성이 왜군에 포위되자 구원하러 참전했다가 전사했다.

이후 선무원종공신 1등에 이름을 올리고 형조판서에도 추증됐다. 남원 충렬사에 제향됐으며, 시호는 무장이다.

이학수 시장은 "한 평생 나라를 지키다 전사하신 신호 장군의 일대기가 정읍시민들의 애국심을 잘 보여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